

1960~1970년대, 사회 분위기

압축 성장의 시기

자본과 자원이 부족한 시기

국가 주도의 성장 제일주의(수출 주도형 경공업 육성) - 저임금 정책

가싼 노동력 확보를 위해

쌀값의 정부 규제-저곡가 정책

노동력의 과잉 공급

- 도시 빈민층 형성

농촌에서 살기 어려워 도시로 상경

인간지옥 같은 노동 환경

다락방 구조의 닭장 같은 작업장

살인적인 노동 시간:

당시 어린 여공(시녀)들은 일주일에 90~100시간이 넘는 노동에 시달림. 하루 14~15시간

근무는 기분,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 잠 안 오는 약(타이밍)을 강제로 먹어가며 철야 작업

질병과 영양실조

법의 유명무실화와 노동권의 탄압

당시 대한민국에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이 존재했음.

정부와 자본의 유착

정당한 노동운동의 금지

—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의 단결권이나 파업권 등 정당한 노동 3권은 철저히 탄압받음.

전태일이 결성한 바보회나 삼동회의 평화적인 시도와 진정 역시 제지당함.

법의 유명무실화 근거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제헌 헌법)

"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이익균점권(노동자가 기업 이익의 일부를 분배 받을 권리)" 등 노동권이 명시되어 있음.

→ 1953년의 근로기준법은 이를 구체화

법에 담겼던 내용들

- 8시간 노동제: 하루 8시간, 주 48시간 노동을 원칙으로 삼음
- 여성 및 연소자 보호: 임신부 보호 휴가, 생리 휴가 보장, 연소자의 야간·휴일 노동 금지 등이 명시
- 강력한 해고 제한 및 퇴직금: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와 퇴직금 제도의 기반 마련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 분신

이 사건을 계기로 노동 문제에 무관심했던 지식인, 대학생, 종교계 각성
'학출(학생 운동권 출신 노동자)' 흐름이 형성, 이는 1970~80년대 한국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이 결합하여 거대한 흐름을 만드는 결정적 도화선이 됨
- 청계피복노조(정식 명칭: 전국연합노조 청계피복지부) 결성: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와 평화시장 동료 노동자들이 1970년 11월 27일 결성한 노동조합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강제 해산

1984년 '청계피복노동조합복구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합법화 투쟁을 전개

결국 1988년 노조를 다시 합법적으로 부활시킴.

1987년 7·8·9월 노동자 대투쟁

1987년 6월 민주항쟁 직후, 7월부터 9월까지 전국적으로 3,000건이 넘는 파업과 노동자 투쟁. 한국 노동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분수령

임금의 대폭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중화학공업 대기업(주로 현대, 대우 등) 노동자들이 주도.

임금의 현실화, 비인격적 현장 문화가 대거 사라짐(두발 단속, 군대식 복장 규제 등)

전국적 연대 조직의 출범: 1990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를 거쳐, 1995년 마침내

합법적인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출범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정 근로시간이 주 48시간에서

주 44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제도의 선진화와 '주 5일제' 도입)

—삶의 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법제화 진행

주 5일 근무제(주 40시간제) 도입 (2004년)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노동자들의 휴식권이 대폭 확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2018년)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 안착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 매년 사회적 이슈로 대두

평화시장 일대의 임대료가 오르고 청계피복노조 등의 활동으로 단속이 심해지자, 봉제 공장들은 서울의 다른 주택가 골목으로 숨어들며 거대한 '배후 생산기지'가 만들어짐.

• 창신동·송인동 골목 (동대문 배후)

1970년대 후반부터 가내수공업 형태의 영세 봉제공장들이 대거 밀집했다.

현재도 창신동 봉제골목이 있으며 주택과 공장의 구분이 어렵다.

• 만리동·청파동·서계동 (남대문 배후)

서울역 인근, 남대문 의류시장을 기반으로 형성된 가내식 봉제공장 지역

구로공단 (수출 전진기지)

국가가 대규모로 조성한 대형 의류·가발·합섬 수출 공장들이 밀집.

이곳 역시 수많은 시골 여공(구로공단 순이들)이 닭장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하루 14시간

넘게 미싱을 돌리던, 눈물과 노동운동의 중심지였다.

대구광역시 (섬유·제직의 심장): 당시에 "대구 경제는 섬유가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 최대의 섬유 제직, 염색, 가공, 봉제 산업 공단과 서문시장 같은 **거대 유통망이 총집결해** 있었음
원단을 짜는 방직 공장부터 옷을 만드는 봉제 공장까지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며 수만 명의 노동자가 밀집해 있었다.

부산광역시 (신발과 경공업의 중심): 부산은 항구를 끼고 있어 **수출에 유리**했기 때문에 대규모 봉제 공장과 세계적인 신발 공장(국제상사 등)들이 즐비했다. 전국의 청소년들이 돈을 벌기 위해 야간열차를 타고 부산의 공장 지대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리(익산) 수출자유지역: 1970년대 정부가 호남 지역의 개발과 수출 확대를 위해 조성
주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대규모 봉제 및 섬유, 보석 가공 공장들이 들어서며 지역 청년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다.

잔존하는 과제 (노동 시장의 양극화와 새로운 사각지대)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양극화)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조

위험의 외주화

— 하청이주 노동자들에게 위험한 작업이 집중되는 문제가 지속적인 사회적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보이지 않는 노동자

—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배달, 대리운전 등),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움

[11월 13일의 불꽃] 속으로

윤자명
작가

2009년 제17회 MBC 창작동화공모 대상

1999년 경남신문 신춘문에 수필 당선 - 수필집 《도요 속의 꽃》 출간

2001년 월간문학 신인상

제1회 토지문학 수필부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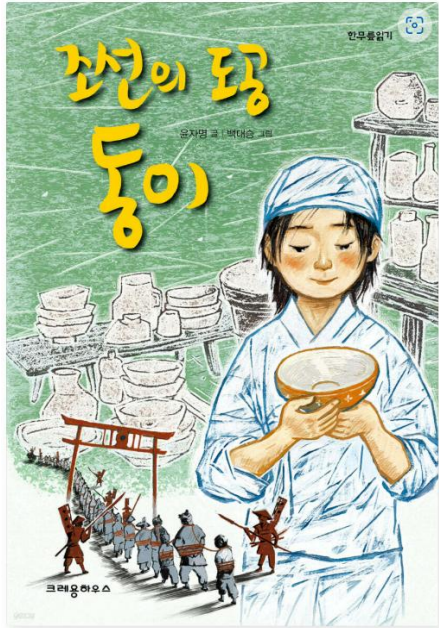
2021년 아르코 문학 창작 기금 - 동화 장편 부문에 최종 선정

아르코 문학 창작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가 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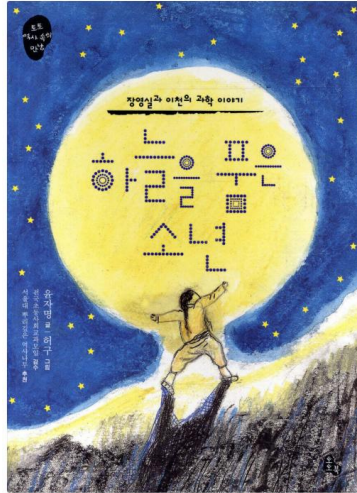
대한민국 문학계의 대표적인 창작 지원 사업

최종 선정 작가에게 일정한 창작 지원금(통상 1인당 1,000만 원)이 포상금 형태로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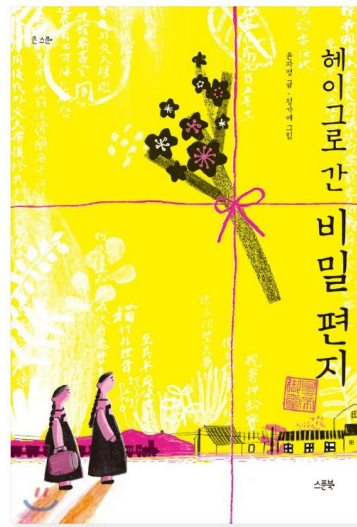
[11월 18일의 불꽃] 속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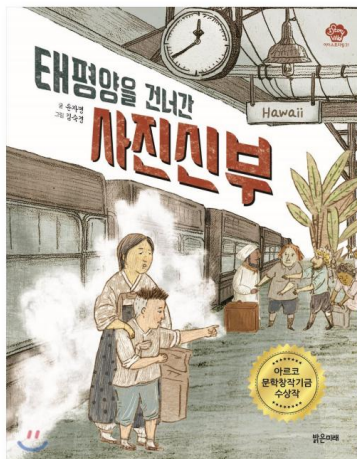
2015. 임진왜란
끌려간 조선
도공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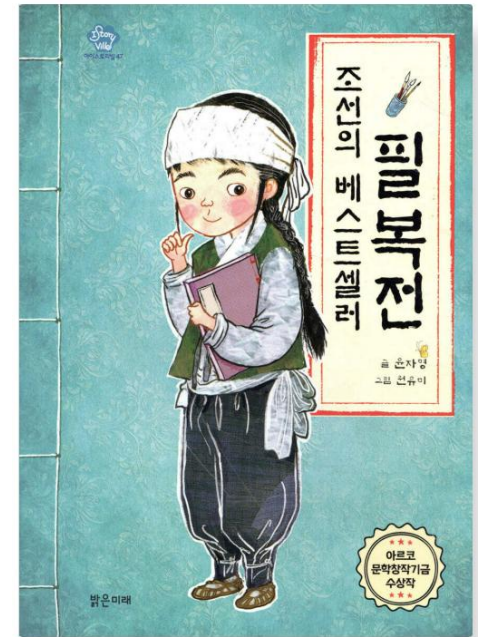
2017. 장영실



2019. 대한제국
헤이그 특사



2018.
일제강점기,
하와이 이민과
사진 신부



2022. 조선 후기 양반 덕
종이 쓴 이야기

[11월 13일의 불꽃] 속으로

단속

남희
언니

진성사

4번시다
순옥

명애
언니

삼동회 모임
은하다방

전태일
재단사

한미사

1024
불발

데모를
하자

근로감독관도 사업주 편

11.7약속
불이행

진정서, 탄원서도 소용 없어

이번 기회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확실한 근로 기준법의 화형식을 하자.

[11월 13일의 불꽃] 속으로

“데모에서도 ‘근로 기준법을 준수하라!’라고 외칠 것이라 했다. 이런 법이 정해져 있는 줄도 몰라서 바보였는데, 알고 나서는 부당한 억압과 철벽을 무너뜨릴 힘이나 지식이 없어 너무 한탄스럽다고 했다.

“내 주변에 대학생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동생 전순옥 여사의 약속: 전태일 열사의 여동생인 전순옥 여사(전 국회의원) 역시 오빠의 뜻을 이어받아 평화시장 시대로 일하며 노동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영국 유학을 거쳐 노동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전태일재단 등에서 활동하며 소외된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실제 이 책의 추천사도 전순옥 여사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11월 13일의 불꽃] 속으로

인상깊은 장면이나 구절

이 책의 추천 별점을 매겨 볼까요?